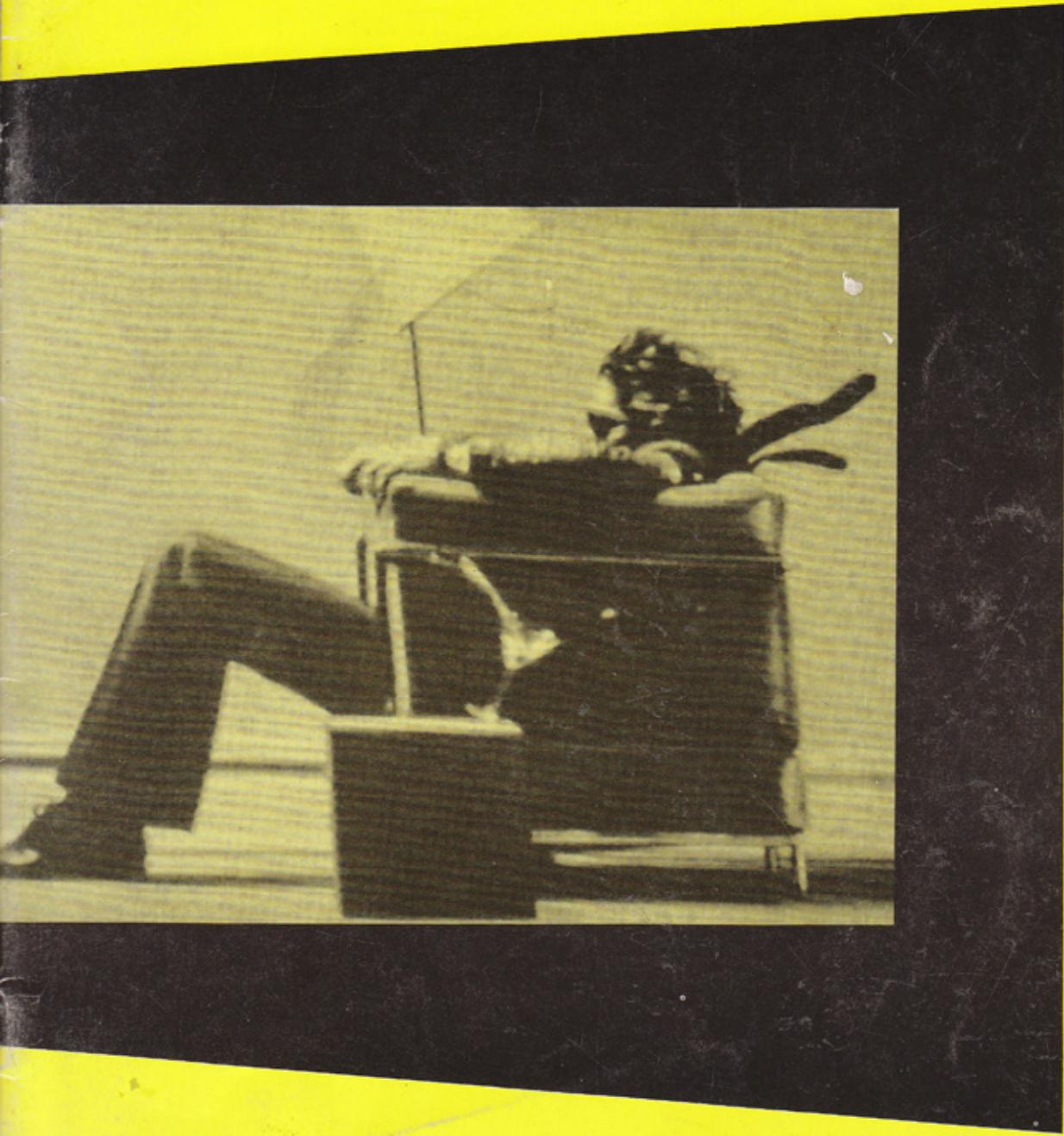


# 세일즈맨의 죽음



일시 : 1993년 5월 20일▶21일(18시)

22일 (13시/17시)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제1공학관 3층)

밖에서 쓰이는 "한글라스"

티없이 맑고 투명한  
**마으유리**  
■■■

멋진 색상과 아름다운 영상을 연출하는  
**색유리** **선서이드** **파스텔유리**  
■■■ ■■■ ■■■  
**슬라가드** **곡유리** **스페셜유리**  
■■■ ■■■ ■■■

에너지 절약과 소음 차단에 탁월한  
**로이유리** **보초유리**  
■■■ ■■■

안전을 보장하는  
**강화유리** **저항유리**  
■■■ ■■■

맑고 깨끗하며 더욱 강한 유리대리석  
**마블라이트**  
■■■

복층유리 제조용 접착제  
**PRC-428H** **SM-4000H**

유리보관 신소재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안에서 쓰이는 "한글라스"

아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무느유리** **색무느유리**

빛과 안전이 함께 요구되는 곳에  
**파이로가드** **첨마유리**  
■■■ ■■■

조명, 의약, 전자, 이화학용 원자재  
**글라스메이트** | **소다간유리** **벌브유리**  
■■■ ■■■ ■■■  
**붕구간유리** **연유리**  
■■■ ■■■

보온, 보냉, 단열, 흡음용 유리섬유  
**하니소** | **매트** **바트** **파이프파이**  
■■■ ■■■ ■■■  
**보드** **이글루** **라미파마트**  
■■■ ■■■ ■■■

조용하고 폐적한 공간을 위한 유리섬유 천정재  
**하니소토**  
■■■

전자파를 차단시켜주는 디층구조의 유리필터  
**스톱파**  
■■■

모 시는 글



극회장  
소장호

## 보이는 곳에도 "한글라스"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한글라스"

저희 회사나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본사 / 02-785-0311(경인영업팀)  
대전영업소 / 042-621-4538 · 광주영업소 / 062-525-9711 · 대구영업소 / 053-425-1241  
부산영업소 / 051-462-0311 · 영동영업소(강릉) / 0391-647-1851

안녕하십니까?

모든 생명의 기운이 하늘을 향해  
푸르름을 퍼트리는 봄날입니다.  
그 생명력 조차도 무력케 하는 짚음들이  
여기 모여서  
제 48회 정기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공연을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 나은  
공연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유리"하면 "한글라스"

HAN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자 매 문 식

TEL. 816-9835



봄 정기공연을 축하합니다

명소 큐피트

TEL. 812-4360

## 작품 분석

「모두 나의 아들들」의 성공 이후 2년 만에 발표된 「세일즈맨의 죽음」은 742회의 장기 공연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일대 선풍을 일으켰을뿐 아니라 밀러를 일약 세계적인 극작가로 만들었다. 이 작품은 내용과 기교면에서 20C 중반의 미국 연극을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한 걸작이다.

밀러는 이 극에서 사실주의와 표현주의의 배합에 성공함으로써 무대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는 상상의 벽, 동시 무대, 조명, 음향 효과 등을 통하여 현재와 과거가 뒤틀리게 된 주인공의 의식세계와 현실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주인공 윌리 로먼은 36년을 헌신해 온 회사로부터 봉급도 받지 못하고 수수료와 친구인 찰리에게서 매주 빌리는 50불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63세의 늙은 외판원이다. 좌절에 빠진 그의 의식은 현재와 과거의 경계선을 파괴시켜 버리고 불만족스런 현실에서 벗어나 행복했던 과거로 되돌아가곤 한다. 그러므로 동시 무대에 의해서 제시되는 과거와 현재의 마찰, 충돌, 대비가 극의 진행과 극적 긴장의 중심을 이룬다. 또한 이 극에서는 현대의 비인간적인 기계문명과 냉혹한 상업주의적 가치관이 윌리가 추구하는 시대착오적 가치관과 대조를 이룬다.

비프는 34세가 될 때까지 뚜렷한 생의 목표나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사회에서 낙오된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실패의 원인은 윌리의 잘못된 교육관에서도 있지만 아버지의 도덕적 타락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세 개의 대학에서 발탁해 가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축구선수였다. 그러나 수학에서 낙제 점수가 나오게 되자 아버지의 탁월한 대인 관계를 믿고 있던 그는 수학 선생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보스톤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 때 비프는 아버지가 호텔에서 어떤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목격한다. 그는 신과 같은 존재로 믿었던 아버지의 도덕적 타락을 목격하자 생의 의지가 마비되어 버린다. 그는 하계강좌에 수강 신청하여 낙제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전도양양한 축구선수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만다. 비프의 경우는 Hawdorne 아래 미국 문학의 주된 전통 가운데 하나인 순수성 상실의 문제 즉 악의 인지가 한 인간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순수연극인을 지향하며 대학연극의 기수로 활동하는  
승대극회 제48회 봄정기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비프는 올리버 사장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려 갔다가 거절당한 후 자신의 삶의 정체에 대한 각성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버지에게 헛된 꿈과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윌리는 비프의 충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현실 직면을 거부한다.

차라리 그는 현실을 직면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윌리의 사회적 자아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에게는 오직 가족간의 사랑, 특히 아들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로서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시민적이며 소박하지만 절실한 욕구만 남아 있을 따름이다.

William Newman은 윌리의 실패의 원인을 “보스頓 호텔 사건 이후 아들과의 사랑의 실패”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2막의 끝부분에서 윌리와 비프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는 후 비프가 윤면서 윌리를 포옹하자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부자간의 정이 통하게 된다. 비프의 사랑이 확인되자 윌리는 아들을 위하여 보험금을 타게 할 목적으로 자살을 단행한다.

이 극의 주된 정서는 공허와 절망이다. 윌리의 자살 기도는 극의 시초부터 드러나 있었다. 그러므로 윌리의 자살은 필연성을 띤다. 극 전체가 윌리의 죽음에 대한 동기와 의미 추구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윌리는 비프의 실패 원인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 때문이었음을 알고 난 후 자살 계획을 세운다. 그의 자살은 끝까지 물질적 성공 추구라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현실 직면을 회피하는 자기 기만적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한낱 써버린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자신의 가치를 마지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소시민의 절실한 욕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 주요 작품 : 모두 나의 아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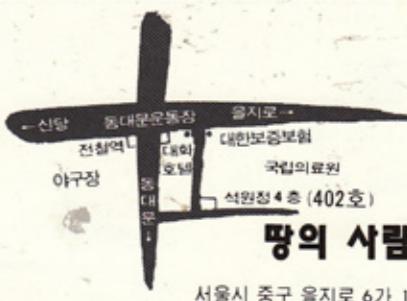
도가니,  
다리에서의 조망,  
두 월요일의 추억,  
타락이후,  
비쉬에서 생긴일,  
代價,

천지창조와 다른일 기타.

송 원덕(조선대학교 교수)  
“보통사람의 비극”(中)

친우를 고장을 찾아나가는,  
땅의 사람들은 일구는 사람들과  
같이하고 싶습니다.

‘땅의 사람들 각종 홍보물 제작(포스터, 팜플렛, 회지등)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 인쇄물의 편집에서 제본까지



땅의 사람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18-52 402호  
TEL/274-2116, 274-2117 FAX/274-2116

## 기획의 변



황명식(전기 88)

우리는 언제나 나약하다.  
우리는 언제나 방황한다.  
우리는 언제나 고민한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간다.  
사는것이 어렵다는것이 실감난다.  
고충건물의 아래위를 마구 뛰어다녀보지만  
결국 남는것은 허무와 지친 몸뿐이다.  
손수건이 젖어오지만  
이 땀이 의미있는 땀이 되기를 바란다.  
언제나 마음 아픈것은 배부르게 밥한끼 사줄수 없는  
마음만이 고통스럽게 나의 발을 재촉한다.  
공연에 수고하신 모든분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사랑의 박수를 보냅니다.

## 두메골

승실인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연회석완비 · 한식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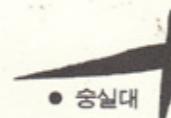
TEL. 813-3655



## 경양식 & 호프전문점

●예로

TEL. 812-5768



무대감독  
손진용(산공 87)



무대장치  
송근호(기계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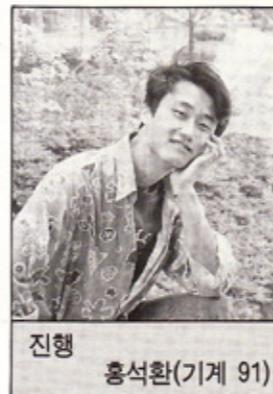
무대미술  
안성문(건축 88)



음향  
송숙희(영문 92)



조명  
이명성(기계 92)



진행  
홍석환(기계 91)



일러스트  
서윤희(사사 90)



홍보  
김소희(독문 91)



소품  
김진범(전산 92)

도와주신분  
김종훈

1921년 연홍회 소인극을 전신으로 하여  
숱한 국내외 화제작을  
무대에 올려온  
숭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의  
마흔여덟번째 정기공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1회 대학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저력을 바탕으로  
젊음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대학극의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일신방직주식회사

박원상(독문 88)



너무 배가 고팠던 게다.

남비에 계란 두어개를 넣고,  
물을 넣고,  
끓인다.

두어개의 계란은 채 익기도 전에  
배고픈 내 열손가락에 의해  
건져진다.

너무 너무 배가 고풀데  
계란 두어개는 싱겁게 뭉개진다.  
뭉개진 계란 두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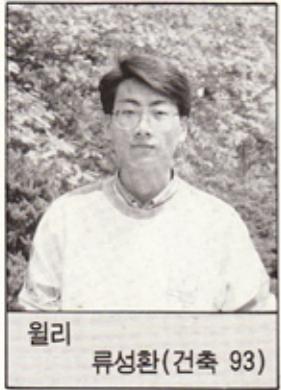
제기랄,  
너무 배가 고팠던 게다.

93. 5. 5. 새벽에

숭대극회 제 48회 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배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동문회 일동

## 무대안의 사람들



나는 느끼고 싶었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윌리 로먼이 되고싶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난 윌리 로먼이다.

윌리  
류성환(건축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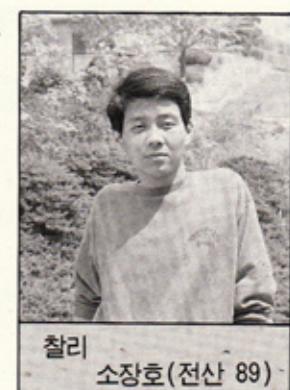


린다  
손미라(사사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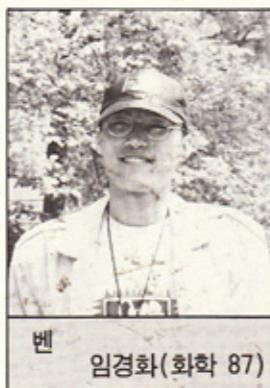


하워드  
홍덕태(사학 87)

나에겐 꿈이 있다.  
나는 매일밤 그 꿈을 꾼다.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았다.



찰리  
소장호(전산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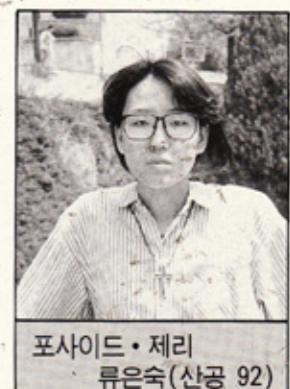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 살기 싫다.

벤  
임경화(화학 87)



버너드  
박정극(법학 93)

아직도  
살아야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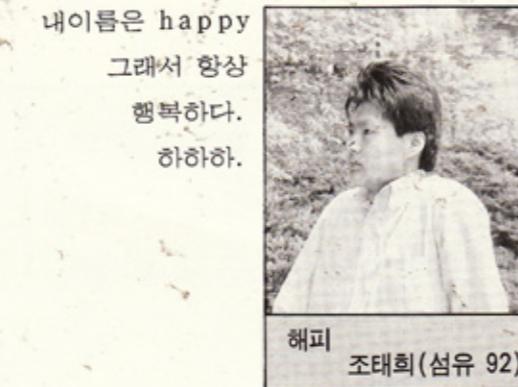


포사이드·제리  
류은숙(산공 92)



인간이 할수 있는  
최상의 영원의 약속은  
죽음 뿐이리라.

비프  
이충희(전기 91)



내이름은 happy  
그래서 항상  
행복하다.  
하하하.

해피  
조태희(섬유 92)



스탠리  
이명석(산공 93)

내년 삼월 춘삼월에  
꽃피고 새가 올제  
당신품에 안기거든  
낸줄 아소서.



제보  
장재연(영문 93)

제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희소인국 "칠세영용 나풀 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탐"		
	1923년 7.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계인간" 앱엣 청년회 주관		
	1923년 7.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폐궁으로 돌아온다" 황영식작	이반	전진호
2	1968년 10.28	"Out Town" by Thom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10	"외자들" 이오네스코작		이태주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15	"聖者와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28, 29	"승부의 終末" 사무엘 베케트작	김양기	
7	1971년 5.26, 27, 28, 31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정종화	
回演劇祭	6.1, 2	"친밀목 살화" 윤조병작 "담배해독에對하여" 안토 체홉작 "황금단지" (로마극) 푸라우더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작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8	1971년 11.4, 5, 11	"서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작	차현재	
9	1972년 5.25, 26, 27	"생일파티" H. 펀터작		한영재
10	1973년 5.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엔마트작		고보인
11	1973년 10.25, 26, 27	"방" H. 펀터작 "기도" (소극장) F. 아라발작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25, 28, 30	"성의의 사람들" (전5막) A. 까뮈작	정종화	
13	1975년 6.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 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9, 30, 31	"비디안과 방화범" Max. Frisch작	김기열	안홍순
15	1976년 6.1, 2, 3	"인터뷰" 장 클로드 반 이델리작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 26, 27, 28	"뱀" 장 클로드 반 이델리작	김영덕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 셋터작	백경식	김영덕
18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 셋터작	방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작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24	"EQUUS" (대학연극 연극제 참가) 피터 셋터작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 19	"한강2979" 김영덕작	정제호	이병국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22	1979년 9.29, 10.2	"초분" 오대식작	이정일	황정순
23	1980년 11.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플라크작	엄세범	박양권
24	1981년 11.12, 13, 14	"노부인의 방문" F. 위엔마트작	이종규	황정순
25	1981년 11.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종작	전석근	황정순
26	1982년 5.12, 13	"까리굴라" A. 까뮈작	음대용	지숙
27	1982년 10.7, 8	"섀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작	전희식	황정순
28	1983년 6.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엔마트작	전희식	김영덕
29	1983년 10.7, 8	"트레비" John Bowne작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작	이종규 엄세범	오세환
31	1984년 10.11, 12, 13	"변전소" John Stoltenberg작	차세훈	이용섭
32	1985년 5.9, 10, 11	"빈민굴" Maxim Gorky작	김상현	이용섭
33	1985년 11.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파에스카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 셋터작	허성무	하승민
35	1986년 9.11, 12, 13	"코뿔소" F. 이오네스코작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권형진 이준석	오정열
37	1987년 9.10, 12, 13	"오해" A. Camus작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2, 3, 4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이어령작	이중일	오정열
39	1988년 10.6, 7, 8	"안내놔? 못내놔!" Dario Fo작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 26, 27	"농녀" 윤조병작	천승범	안선후
41	1989년 10.10, 11, 12, 13	"대성당의 살인" T.S. Eliot작	오정열	이반
42	1990년 5.24, 25, 26	"안티고네" 장 아누이작	권태수	이준석
43	1990년 8.30, 9.1, 2	"한복연대기" 황석영작	천승범	이영민
44	1991년 5.30, 31, 6.1	"생일파티" H. 펀터작	남재우	천승범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작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발을 불었다" 김상렬작	임경화 정현용	홍은영
47	1992년 9.17, 18, 19	"금관의 예수" 김지하작	홍석환	송근호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봄" W. Anrigf작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작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성작	전경호	안홍순
4	1979년 3.29, 30	"셋" 이강백작	한철	정제호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er작	이영환	오세환
6	1982년 3.24, 2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학작	최시영	이용섭
7	1983년 4.16	"블랙코메디" 피터 셋터작	전희식	홍여석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간" N. Holand작	차세훈	김인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9	1985년 7.20	"ARIA DA CAPO" E. St. V. Miller작	이영민	하승민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헨리 일센작	이길영	김정은 위성신
11	1987년 3.12, 13, 14	"더러운 손" J.P. 샤르트르작	백윤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작	천승범	황금실
13	1989년 3.23, 24, 25	"혹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 Camus작	홍미래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éoch Straub	이영민	박혜숙 안상준 백로라
15	1991년 3.7, 8, 9	"노크노크" 줄스파이퍼작	정현용	이병준
16	1992년 5.28, 29, 30	"꿈되고 물마시고" 이근삼작	김상경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비누사" Georg Kaiser작	소장호	박원상



(주) 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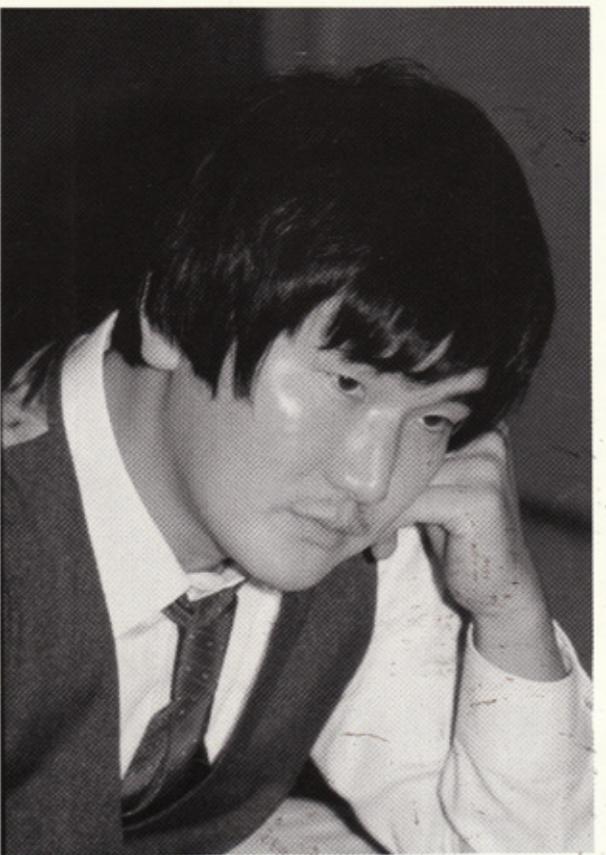
광고물 제작

(네온·싸인물·현수막)

승대극회 제48회 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 대진  
588-2784~6

# 바 둑 世 界



本因坊  
조치훈

## 읽을거리가 없다구요?

많은 분들이 바둑世界는 읽을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재미가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재미도 느낄 수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世界는 읽을거리가 없고 재미도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바둑世界가 지난 86년 7월 창간 이래 가장 폭넓은 독자층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성공한 전문월간지 중 하나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바둑世界는 저속한 문화에 구미를 맞춘 잡다한 읽을거리나 구색맞추기 취재기사를 실는 잡지가 아닙니다. 지난 7년간 바둑世界는 선택된 분만을 소중하게 모셔왔습니다.

바둑世界는 바둑을 사랑하고 棋力향상을 희망하는 분, 드라마 같은 프로바둑의 묘미를 감상할 줄 아는 그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런 대화를 자주 듣습니다.

『바둑世界가 읽을거리가 없다구요?』

아하! 바둑을 모르시는군요.



내제자 수업을 받기 위해 작년 8월  
도일한 김수준(右), 김광식(左)군.

## 조치훈, 일본 전국 순회 기재있는 소년소녀 발굴목적

지난해 서울을 방문해 내제자 두명을 받아들인 조치훈 本因坊이 자택을 개방, 일본에서도 내제자를 받아들일 생각이다.

바둑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기재가 뛰어난 어린이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순회지도 대국을 갖게 된 조本因坊은 5월부터 시작되는 本因坊戰 도전기간을 제외하고는 열성적으로 전국을 돌 생각이라고.

정기회원모집 266-1201



## ‘트래드클럽문화’

트래드클럽은 단순한 옷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옷과 생활을 아울러 멋있게 하는 문화 브랜드입니다.

웃은 이미 옷이 아닙니다. 옷은 인격이요, 상징이요,

문화입니다. 문화란, 삶을 훌륭하게 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남성복식문화의 정통으로 빛나는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트래디셔널을 오늘의

문화감각, 국제감각과 하나로 교직하여

훌륭한 삶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트래드

클럽문화의 개념입니다.

때문에 트래드클럽은 저희 고객을 단순히 ‘옷의

구매자,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인, 비지

니스맨, 문화인으로 봅니다. 생활속에 비즈니스속에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옷과 생활을 함께 멋있게

하는 문화브랜드— 트래드클럽.

이제 옷차림은 트래드클럽과 상의해주세요.

## 막 사입어도 일년된듯한 옷, 십년을 입어도 일년된듯한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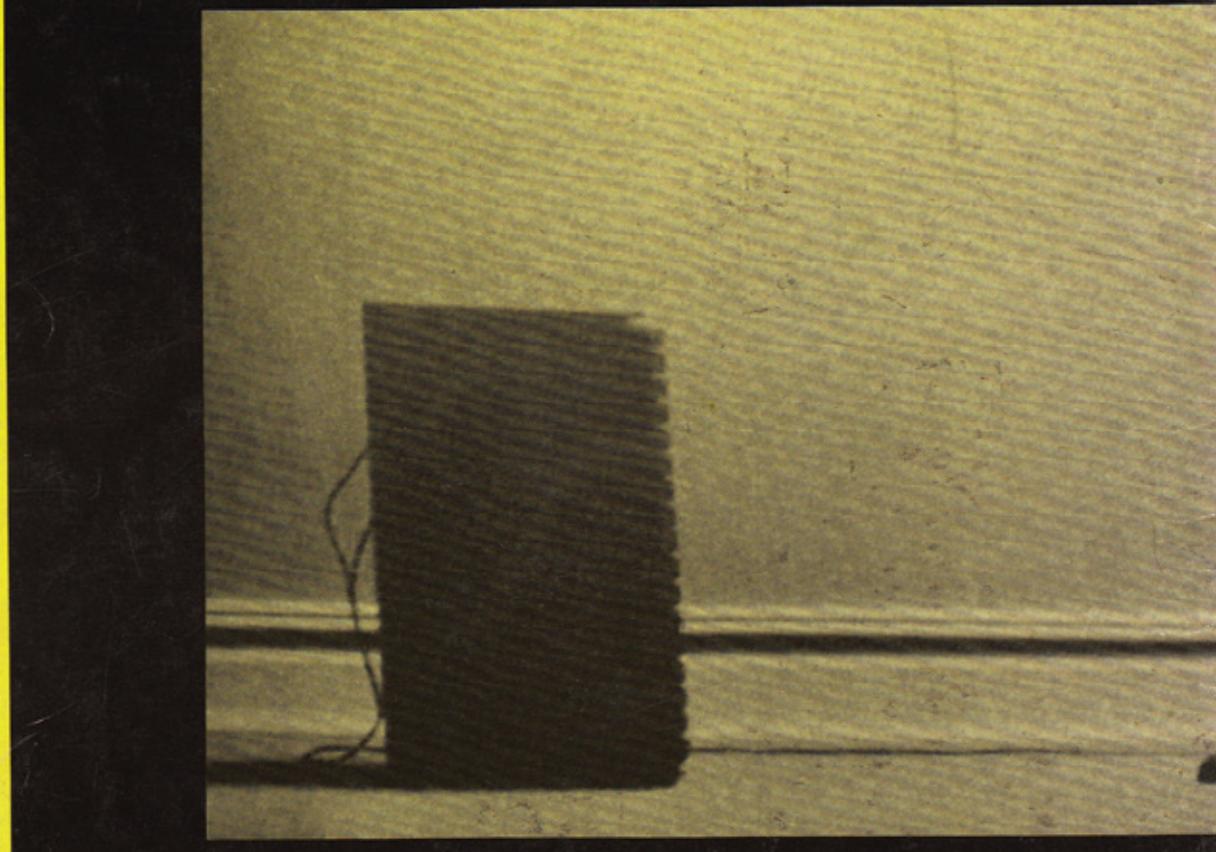


(주)서울트래드 클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9-19 트래드클럽빌딩 대표전화 (02)542-8888



DEATH OF A SALESMAN

승대극회 제48회 봄 정기공연



원작 / A · Miller      기획 / 황명식      연출 / 박원상

주 쇠 : 숭실대학교 승대극회